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우 석 훈*

1. 머리말
2. 새로운 長城의 築造
3. 遼河 유역의 邊崗 유적
4. 맺음말

1. 머리말

성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는 그 기원부터 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구려라는 국명은 城邑(성읍)을 의미하는 ‘溝婁(구루)’에서 유래한 것¹⁾으로서 고구려 지방에 흔히 붙는 忽 또는 骨(홀 또는 골) 또한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²⁾

고구려의 성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수단인 동시에 영토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였으며, 지방 통치를 위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사 연구에서

* 인하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1) 『三國志』卷 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傳. “溝婁者, 句麗名城也.”
2)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53~369쪽.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³⁾ 건국 이래로 도성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성을 축조하여 외세의 침입에 대비한 고구려는, 중국 여러 왕조들의 침입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만의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⁴⁾ 이러한 군사방어체계는 6세기 말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 고구려를 침입한 수와의 전쟁에서 그 위력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당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축조한 천리장성은 7세기 초까지 유지되어 오던 기존 방어체계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당 전쟁을 앞두고 ‘장성’이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어체계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요동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諸城(제성)들에 대한 연구와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다.⁵⁾

-
- 3) 지방통치 거점설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82~284쪽;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 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269~302쪽이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余昊奎,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91, 한국사연구회, 1995; 여호규, 「遼河中上流東岸地域의 高句麗城과 地方支配」, 『역사문화연구』1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2 등이 있다.
- 4) 고구려 초기의 군사방어체계에 관한 연구는 遲勇, 「高句麗都城의戰略防禦系統」,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部, 1993; 여호규, 「國內城期 高句麗의 軍事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1, 國防軍事研究所, 1998; 林起煥, 「高句麗 前期 山城研究: 高句麗 山城의 기초적 검토」, 『國史館論叢』82, 國史編纂委員會, 1998 등이 있으며, 고구려 후기의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여호규, 「高句麗 後期の 軍事防禦體系와 軍事戰略」, 『韓國軍事史研究』3, 國防軍事研究所, 1999; 신형식 외, 『고구려산성과 해양 방어체제 연구』, 백산자료원, 2000; 여호규, 「고구려의 성과 방어체계」,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2007 등이 있다.
- 5) 기존 방어체계인 요동지역의 제성들을 고구려 천리장성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국내·북한·중국 학계의 주된 입장이다.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대당 전쟁에서 천리장성과 관련된 기록의 부재는 기존 연구가 고구려 산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었다.
- 국내 학계에서의 연구에는 申滢植, 「高句麗 千里長城의 研究」, 『白山學報』49, 白山學會, 1997; 신형식 외, 앞의 책, 2000; 해외한민족연구소 외, 「高句麗는 왜 千

그러나 길림성~요녕성까지 토축으로 이어지는 邊崗(변강) 유적⁶⁾이 발견됨에 따라 이 변강을 고구려의 천리장성으로 보는 변강설⁷⁾이 새롭게

里長城을 쌓았는가: 안시성은 실제 어디에 있었나, 해외한민족연구소 외, 2008 등이 있다.

- 북한 학계에서의 연구에는 박창수, 「고구려 서북방 성방어체계의 위력」, 『조선고고연구』1988-3, 사회과학출판사, 1988; 박창수, 「고구려의 성 분포와 서북방어체계」, 『력사과학문집』1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박진옥, 「요하류역의 고구려 성들」, 『조선고고학전서』(중세편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남일룡, 『중세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성 방어체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등이 있다.
- 중국 학계에서는 그 성격에 따라 山城聯防線說(산성연방선설)과 山城防禦組群說(산성방어조군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성연방선설에는 王健群, 「高句麗千里長城」, 『博物館研究』1987-3이 있으며, 산성방어조군설에는 陳大爲, 「遼寧高句麗山城初探」, 『中國考古學會第五次會論集』, 1985; 王綿厚, 「隋唐遼寧建置述考」, 『東北地方史研究』1986-1; 王德柱·梁振昌, 「高句麗千里長城考」, 『遼海文物學刊』1994-2; 陳大爲, 「遼寧高句麗山城再探」, 『北方文物』1995-3, 北方文物雜誌社, 1995 등이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장성'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장성이란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경 지역에 축조한 장벽을 의미한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고구려 천리장성이 요동지역의 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미 기존의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수와의 전쟁에서도 역시 고구려가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타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의 전쟁을 앞둔 시기에 와서야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요녕성 경내에 있는 고구려 산성들이 수축된 것은 고구려가 완전히 요동군과 현도군을 장악한 405년 이후부터 7세기 사이에 건설된 것이다. 따라서,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쌓을 필요는 없었다.

- 6) 변강은 1971년 10월과 1983년 5월, 길림성 懷德縣(회덕현) 경내의 토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王健群, 앞의 글, 1987; 李健才, 「唐代高麗長城和扶余城」, 『民族研究』1991-4, 中國社會科學院民族學與人類學研究所, 1991) 대표적인 명칭으로는 '老邊崗(노변강)'을 들 수 있으며, '邊(변)·崗(강)' 혹은 '邊崗(변강)'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길림성·요녕성의 촌락에서 그 유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변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張福有·孫仁杰·遲勇, 『高句麗千里長城』, 吉林人民出版社出版發行, 2010, 285쪽)
- 7) 변강설은 중국 길림성·요녕성 지역에서 발견된 변강 유적을 고구려의 천리장성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다만, 변강설 역시 아직까지 고구려의 유물이라 할 만한 것이 출토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국내 학계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여호규,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

주목받았다.

변강 유적은 요하를 도하하는 것을 방어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방향이 동북~서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그 축조 방식과 형태가 길림성~요녕성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천리장성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천리장성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⁸⁾ 특히, 여호규는 고구려가 요하 동안의 평원에 새롭게 천리장성을 축조한 까닭은 당의 조종을 받던 契丹(거란)의 침공에 대비하는 한편 靺鞨(말갈)의 이탈을 봉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설명⁹⁾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주목된다.¹⁰⁾

2장에서는 천리장성의 축조 전과 후를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수와 당의 침입경로¹¹⁾를 비교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군이 요하 연안에서

景], 『國史館論叢』 91, 국사편찬위원회, 2000; 東潮·田中俊明지음, 박천수·이근우 옮김,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번역총서14, 동북아역사재단, 2008이 있다.

- 중국 학계에서의 변강설의 대표적인 연구에는 李健才, 「東北地區中部的邊崗和延邊長城」, 『遼海文物學刊』1987-1; 李健才, 앞의 글, 1991; 李健才, 「再論唐代高麗的扶余城和千里長城」, 『北方文物』2000-1, 北方文物雜誌社, 2000; 魏存成, 『高句麗遺迹』, 文物出版社, 2000; 馮永謙, 「高句麗千里長城建置辨」, 『東北歷史与文化』 2002-1, 吉林省社會科學院, 2002; 姜念思, 「千里長城何處尋」, 『沈陽史話』, 沈陽出版社, 2008; 張福有·孫仁杰·遲勇, 「高句麗千里長城調查要報」, 『東北史地』 2010-3, 吉林省社會科學院, 2010; 張福有·孫仁杰·遲勇, 『高句麗千里長城』, 吉林人民出版社出版發行, 2010; 崔艷茹, 「貞觀十九年唐軍攻打高句麗建安城的進軍路線考」, 『東北史地』2012-1, 吉林省社會科學院, 2012 등이 있다.

8) 李健才, 앞의 글, 1991; 여호규, 앞의 글, 2000;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등.

9) 여호규, 앞의 글, 2000.

10) 여호규는 요하동안에 고구려가 설치한 천리장성은 기존 산성들과의 거리가 멀어 지게 되며, 이에 따라 고구려가 기존의 방어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어체계를 확립 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 지금까지 대수·당전쟁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수와 당의 침입경로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수와 당의 침입경로에 대한 연구로는 李丙燾, 「고구려 대 수·당 항전」,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池内宏,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5-16, 太學社, 1979; 蒞中正, 『中國歷代戰爭史』, 黎明文化事業公司, 198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高句麗 對隋·唐 戰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91; 임기환, 「고구려

보이는 특이동향을 중심으로 변강과 천리장성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변강에 대한 중국 학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奉天通志(봉천통지)』에 수록되어 있는 변강에 대한 기록을 분석할 것이다.¹²⁾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기존의 방어체계인 요동지역의 성들이 아닌 고구려가 새롭게 축조한 장성이었음을 밝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새로운 長城의 築造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안타깝게도 이 밖에 천리장성이 언급된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¹³⁾

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4; 李昊榮, 「隋와의 戰爭」,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張文才, 『隋代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998;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 軍事科學出版社, 1998; 劉矩·姜維東, 『唐征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 2006; 張正岩·王平魯, 「新城道及新城道上諸城考」,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 哈爾濱出版社, 2007, 429~432쪽; 김창석,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15, 동북아역사재단, 2007; 이동준, 「隋煬帝의 高句麗 원정과 군사전략」, 『學林』30, 연세대학교, 2009; 喬鳳岐, 『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中國社會出版社, 2010; 김병곤, 「661~662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의 전략과 한계」, 『한국사학보』50, 고려사학회, 2013 등이 있다.

12) 『봉천통지』에는 변강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강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조차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13)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59쪽 참조.

주요주장	천리장성의 성격	관련 논문
山城 聯防線說	서풍 성자산산성에서 요동반도 최남단의 비사성에 이르는 성들을 잇는 평원 산간 접경의 기존 성을 연결	양진경, 「고구려천리장성고」, 『요해문물학간』, 1994-2, 1994.
中間 防禦線說	기존 산성과 요하 사이의 평원지대에 별도의 장성	진대위, 「요녕고구려산성재탐」, 『북방문물』, 1995-3, 1995.
双重防禦 障塞說	기존 산성 방어선 외에 요하 양안에 두 줄기의 방어선을 구축, 무려라가 요하 서쪽의 대표적인 방어선	왕면후, 「압록강좌안고구려산성종합연구」, 『요해문물학간』, 1994-2, 1994.

A-① 詔遣廣州都督府司馬長孫師，往收瘞隋時戰亡骸骨。毀高麗所立京觀。建武懼伐其國，乃築長城。東北自扶餘城西南至海，千有餘里。¹⁴⁾

A-② 帝詔廣州司馬長孫師臨瘞隋士戰屍。毀高麗所立京觀。建武懼乃築長城千里，東北首扶餘西南屬之海。¹⁵⁾

A-③ 十四年，唐遣廣州司馬長孫師臨瘞隋戰士骸骨祭之。毀當時所立京觀。春二月，王動衆築長城，東北自扶餘城東南至海，千有餘里。凡一十六年畢功。¹⁶⁾

A-④ 二十五年春正月，遣使入唐朝貢。王命西部大人蓋蘇文監長城之役。冬十月，蓋蘇文弑王。¹⁷⁾

A-⑤ 蓋金又奏築長城，東北西南，時男役女耕役，至十六年乃畢。¹⁸⁾

이상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천리장성의 축조 배경은 당의 京觀(경관) 파괴라고 볼 수 있다.¹⁹⁾ ‘남자들은 부역에 나가고 여자들이 농사를 지었으며, 16년에 걸쳐 장성을 축조하였다’는 A-⑤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平原土壁說	농안에서 요하 하구의 영구를 따라 평원을 잇는 경로에 축조. 공주령시 노변강 유적이 천리장성 유적	이건재, 『동북지구중부적변강화연변장성』, 『요해문물학간』, 1987-1, 1987.
補助土壘說	장성은 이름뿐, 실체는 흙으로 만든 작은 방벽에 불과, 요동의 여러 성들을 연결한 보조시설	왕건군, 『고구려천리장성』, 『박물관연구』, 1987-3, 1987.
시대별 변화설	처음 농안-영구로 이어지는 강변길 보호성곽시설, 7세기 전반 신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새로운 장성 축조	신형식, 『천리장성』, 『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제연구』, 백산자료원, 2000.
평원군사 방어시설	농안-영구에 이르는 송요대평원과 요하 동안을 따라 평원상에 구축된 새로운 군사방어선	여호규, 『고구려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성배경』, 『국사관논총』 91, 2000.

14) 『舊唐書』 卷 199, 東夷 高麗傳.

15) 『新唐書』 卷 145, 東夷 高麗傳.

16) 『三國史記』 卷 20, 「高句麗本紀」 8, 榮留王 14年 條.

17) 『三國史記』 卷 20, 「高句麗本紀」 8, 榮留王 25年 條.

18) 『三國遺事』 卷 3, 「興法」, 寶藏奉老 條.

19) 『資治通鑑』에는 京觀의 파괴를 631년 8월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의 파괴와 천리장성의 축조가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구당서』·『신당서』·『삼국사기』에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한 까닭이 당의 경관 파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경관의 파괴가 천리장성 축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천리장성의 축조는 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중대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미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고구려가 당이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시간과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새롭게 장성을 축조하였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필자는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한 또 다른 이유를 628년(榮留王11) 당에 보냈다는 ‘봉역도(封域圖)’와 연관 시켜보고자 한다.²⁰⁾ 건국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해 나가던 당과 고구려, 두 국가 간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²¹⁾ 이에 고구려는 봉역도를 보내 고구려의 세력권이 미치는 경계를 확실히 하였는데,²²⁾ 당은 廣州司馬(광주사마) 長孫緇(장손사)를 파견하여 고구려가 세운 京觀(경관)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구려가 요하 연안에 천리장성을 축조한 까닭은, 새로운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당의 위협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을 당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고구려가 대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²³⁾과 비교해보면, 대당 전쟁을 앞두고 장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은

- 20) 『三國史記』 卷 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11年 條. 秋九月, 遣使入唐, 賀太宗擒突厥頡利可汗, 兼上封域圖.
- 21) 당은 628년(太宗 貞觀 2) 돌궐의 頡利可汗(힐리가한)을 사로잡았으며, 629년(太宗 貞觀 3)에는 영주 지역에 東夷校尉(동이교위)를 설치하는 등 점차 동쪽으로의 세력 확대를 꾀하는 모습을 보인다.
- 22) 628년(榮留王 11) 당에 보냈다는 봉역도를 당의 요청에 의하여 바쳐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李昊榮, 앞의 책, 1996, 126쪽), 이와는 달리 ‘봉역’이란 ‘흙을 쌓아서 만든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봉역도를 보낸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강역을 표시한 것이며 이는 당과 고구려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견해도 있다.(李龍範, 「高句麗의 遼西 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한국사학회, 1959, 225쪽; 서병국, 『고구려제국사』, 도서출판 해안, 1997, 240~242쪽)
- 23) 『三國史記』 卷 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32年 條. ‘王聞陳亡大懼, 理兵積穀, 爲拒守之策.’ 陳이 멸망하였다는 것을 들은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병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비축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천리장성의 축조와 같은 대규모

고구려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성을 축조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와 당의 고구려 침입경로를 비교하는 작업은 천리장성의 축조 전과 후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가. 隋와 唐의 高句麗 침입경로 비교

먼저, 수의 침입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표 1>은 수의 고구려 침입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隋의 침입경로²⁴⁾

시기	지휘관 및 침입경로	遼河 도하지점
598	(楊諒) 涿郡→臨渝關→營州→ 懷遠鎮 →遼河	懷遠鎮
	(王世績) 涿郡→臨渝關→營州	X, 퇴각
	(周羅暎) 東萊→遼東半島 南端에서 풍랑을 만남	X, 水軍
612	(楊帝) 涿郡→臨渝關→營州→ 懷遠鎮 →遼水→遼東城	懷遠鎮
	(宇文述 等) 遼東城→烏骨城→鴨綠水→薩水→平壤城→薩水	X, 별동대
	(來護兒) 東萊→涿水→平壤城	X, 水軍
613	(楊帝) 涿郡→臨渝關→營州→ 懷遠鎮 →遼水→遼東城	懷遠鎮
	(宇文述) 遼東城→烏骨城→鴨綠水	X, 별동대
	(王仁恭) 遼東城→(扶余道)→新城	X, 별동대
614	(楊帝) 涿郡→臨渝關→營州→ 懷遠鎮	懷遠鎮
	(來護兒) 東萊→卑奢城→(平壤城)	X, 水軍

네 차례에 걸친 수의 침입경로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의 육로군은 모두 탁군에 집결하여 병력을 점검하고 이후 임유관을 통과하여 동이교위가 설치되어 있던 영주를 통과하였다. 이후 회원진에서 요수를 도하하여 요동성을 공격한다. 물론, 별동대를 동원하여 평양을

국가 중대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24) 『舊唐書』·『新唐書』·『三國史記』·『資治通鑑』 등을 바탕으로 제작.

공격하거나 주변의 성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모두 요하 도하 이후의 행동이기 때문에 요동성까지의 침입경로는 동일했다고 볼 수 있다.²⁵⁾

수의 고구려 침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수의 침입은 주로 탁군→임유관→영주→회원진→요하→요동성의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수가 계속해서 요동성을 공격했던 까닭은 바로 이 요동성을 지나는 경로가 고구려의 도성인 평양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경로였기 때문이다.²⁶⁾ 당시 수의 주력은 대부분 關中(관중) 지역 출신들로 구성²⁷⁾되어 있어 추위에 약하였고, 보급선이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지역의 겨울이 오기 전에 고구려의 도성을 점령하여야 했다. 둘째, 수의 2차 침입 당시 많은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요하에서 수의 도하를 저지하였다는 점이다. 요하라는 자연지형물에 의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수와의 전쟁 기록에서 이미 요동성·신성·비사성·개모성 등 요동지역의 산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와의 전쟁에서

25) 당과 마찬가지로 수 역시 고구려 침입에 水軍(수군)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수군은 동원 가능한 병력 및 공성장비가 제한적이었으며,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에 주력이 되어 단독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웠다. 그 예로 수의 1차 고구려 침입에서 수군은 풍랑을 만나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2차 고구려 침입에서는 평양을 공격했다가 대패를 당하였다. 4차 고구려 침입에서는 요동반도에 상륙하여 비사성을 함락시키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가 동원한 수군의 역할은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향해 진군하는 육로군에 안전한 보급선을 확보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6) 遼西에서 고구려의 도성인 平壤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보아 총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通定鎭에서 遼河를 도하하여 현재의 瀋陽·撫順·通化 또는 桓仁·集安을 거쳐 平壤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둘째는 遼河를 도하한 후 현재의 遼陽·本溪·丹東을 거쳐 鴨綠江을 건너 平壤으로 들어가는 길, 마지막으로는 遼澤을 가로지거나 海城·大石橋·岫巖·丹東을 지나 鴨綠江을 건너 平壤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 이 노선들은 현재에도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당시 이 지역에는 고구려의 강력한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여호규, 『고구려성Ⅱ』,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1999, 61~72쪽; 김용만, 앞의 책, 2003, 67쪽; 이동준, 앞의 글, 2009, 153~154쪽)

27) 김선민, 『隋 煬帝의 軍制改革과 高句麗遠征』, 『東方學志』119, 동방학보, 2003, 176쪽.

이상의 성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16년 동안 축조하였다는 ‘장성’이 과연 요동지역의 산성들을 가리키는지는 의문이다.

거의 동일한 경로로 침입한 수와는 달리 당의 침입경로는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645년 침입 이후 당의 전략이 국지적인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그 침입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당의 침입경로를 분석하여 본다면 대체로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唐의 침입경로²⁸⁾

시기	지 휘 관 및 침 입 경 로	遼河 도하지점
645	(李勣)→通定鎮→玄菟城→新城→蓋牟城	通定鎮
	(太宗)→遼澤→懷遠鎮→遼東城→白巖城→安市城	懷遠鎮
	(張儉)→遼澤→遼水→建安城	遼澤 혹은 海
	(張亮)→東萊→卑沙城→建安城	X, 水軍
647	(李勣)→遼水→(遼東道)→通定鎮→南蘇城→木底城	通定鎮
	(牛進達)→石城→積利城	X, 水軍
648	(薛萬徹)→鴨渌水→泊灼城→大行城	X, 水軍
661	(蘇定方)→溟江→馬邑山→平壤城	X, 水軍
	(龐孝太)→溟江→蛇水	X, 水軍
	(蕭嗣業)→鐵勒과의 전투에 투입	알 수 없음
	(契苾何力)→? →鴨綠水→회군	알 수 없음
666	(契苾何力)→國內城의 男生과 회합	알 수 없음
667	(李勣)→(通定鎮)→新城(주변 16城)	通定鎮으로 추정
	(薛仁貴) 新城→南蘇城→木底城→蒼岳城	
668	(李勣, 契苾何力)→扶餘城→薛賀水→大行城→平壤城	알 수 없음

수와 당의 침입경로 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요하 도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수는 회원진을 통해서만 요하를 도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의 645년 침입경로를 살펴보면 회원진

28) 『舊唐書』, 『新唐書』, 『三國史記』, 『資治通鑑』 등을 바탕으로 제작

뿐만 아니라 통정진·요택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도하하는 모습을 보인다.²⁹⁾

이처럼 수와는 다르게 당이 여러 장소에서 요하를 도하한 까닭은 고구려 군을 분산시켜 천리장성으로 상정되는 고구려의 방어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³⁰⁾ 645년의 전투에서 고구려가 통정진을 통하여 도하하는 당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구려 천리장성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기존의 수성전을 통한 지연작전을 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천리장성에 관한 기록 역시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은 645년의 침입 이후 국지적인 소모전 양상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면서 요하 유역에서의 대규모 군사충돌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후 唐은 몇 차례 더 고구려를 침입하였으나 647년에 발생한 이세적의 침입을 제외하면 해로를 통한 침입으로 보인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양국의 대규모 군사 충돌은 661년(현경6)의 침입에서 확인된다.³¹⁾ 소정방이 이끄는 水軍(수군)은 요동반도에 상륙한

29) 물론, 요하를 도하하는 시점에서 수와 당이 차이를 보였던 까닭은 ① 수의 패배를 교훈삼아 당이 침입경로를 수정하였다. ② 수와 당의 병종구성 및 기본적인 군사전략의 변화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③ 수와 당의 고구려 침입 시점의 기후 조건 혹은 자연 환경의 차이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당의 침입에 앞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천리장성의 축조 역시 당의 전략을 수정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30) 사카쿠라 아즈히데 지음, 유재춘·남의현 옮김, 『長城의 中國史』,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246~247쪽.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는 경우 자주 시도하는 것을 ‘分道(분도)’라고 하는데 군대를 몇 개로 나누어 근처의 여러 개의 장소를 일체히 공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수비 측은 서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자신의 수비 범위의 방어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중략) 하나라도 파괴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대군이 일시에 장성 라인을 넘어서 남하해 오게 된다.

31) 尹秉模, 「고구려의 對唐戰爭과 遼西 및 동몽골 진출」, 『몽골학』 27, 한국몽골학회, 2009. 당과 고구려가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은 655년 貴端水(귀단수)와 658년 赤烽鎮(적봉진), 그리고 659년 橫山(횡산)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나타나지만 귀단수·적봉진·횡산은 동몽골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당서』와 『신당서』 열전 위정전에 기록된 653년 吐護眞水戰(토호진수전), 그리고 『신당서』·『책부원구』에 기록된 654년

것이 아니라 溟江(패강)에 상륙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도성이 포위당하는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연개소문이 방효태 군을 蛇水(사수)에서 전멸시키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³²⁾

그런데 당의 661년의 침입이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있다. 661년의 침입에서 주목할 점은 소정방의 평양공격과 동시에 계필하력과 소사업 등이 이끄는 부대 역시 압록수에서 남생의 고구려군과 공방전을 벌였다는 점이다.

661년의 침입에서 당이 요동을 통과하였다는 기록은 『구당서』·『신당서』·『삼국사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남생과 전투를 벌였던 계필하력·소사업 등이 鐵勒(철락)의 참전으로 철락과의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 회군할 때도 요동을 통과하였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압록수에서 남생과 전투를 벌인 당군 역시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요동반도에 상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³⁾

이후 요동 지역을 통한 당의 침입은 666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666년 이후의 전투는 남생의 배신으로 이미 여러 성들이 당에게 넘어간 후의 상황이므로 고구려 천리장성에서의 전투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645년의 전투 이후 고구려가 멸망하기까지 요하 연안에서의 대규모 군사 충돌은 발생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천리장성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松漠新城戰(송막신성전) 역시 고구려 경내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의 전투는 요서 및 동몽골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고구려와 이를 저지하려는 당의 전투이며, 그 전장은 요서 일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32) 당은 661년의 침입에서 요동반도에 상륙하던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평양 부근의 패강에 직접 상륙하였고, 평양을 포위하는 성과를 올린다. 그러나 결국 평양을 함락시키지 못함으로써, 육로군의 지원 없이 수군만으로 평양을 공격하는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김병곤, 앞의 글, 2013)
- 33) 『資治通鑑』 卷 198, 『唐紀』14, 太宗 貞觀 21年~22年 條에 따르면 당은 645년의 침입이 실패로 돌아간 후 수많은 전선을 건조케 하였다. 이후 당이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 遼河 연안에서의 唐軍의 동향

수와 당의 침입경로를 비교해 본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던 곳은 요하 연안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을 가지고 고구려가 요하 연안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음을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요하 연안에서는 침입경로의 차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군의 특이한 동향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기에서는 요하 연안에서 발생한 당군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요하 연안에 구축된 천리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B-① 李世勣軍發柳城，多張形勢，若出懷遠鎮者，而潛師北趣甬道，出我不意。夏四月，世勣自通定濟遼水至玄菟，我城邑大駭皆閉門自守，副大總管江夏王道宗將兵數千至新城，折衝都尉曹三良引十餘騎直壓城門，城中驚懼無敢出者。³⁴⁾

B-② 時有獲高麗候者，稱莫離支將至遼東。詔儉率兵自新城路邀擊之，莫離支竟不敢出。儉因進兵渡遼，趨建安城，賊徒大潰，斬首數千級。³⁵⁾

B-③ 營州都督張儉將胡兵爲前鋒，進度遼水，趨建安城破我兵，殺數千人。³⁶⁾

상술하였듯이 당은 수와는 다르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요하를 도하하였다. B-①과 B-②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요하를 도하하는 당군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세적은 회원진에서 도하하는 척하면서 몰래 북쪽의 통정진에서 도하하였고, 당 태종이 이끄는 당의 주력 역시 요택을 지나 요동성을 공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검은

34) 『三國史記』卷 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年 條.

35) 『舊唐書』卷 83, 「列傳」3, 張儉傳.

36) 『三國史記』卷 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年 條.

『舊唐書』卷 83, 「列傳」3, 張儉傳에 장검은 연개소문이 요동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新城道(신성도)를 통해 요하를 도하하려다가 연개소문이 나타나지 않자 요하를 건넌 다음 건안성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막리지(연개소문)가 요동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新城路(신성로)로 나아가 연개소문과 싸우고자 하였으나 연개소문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요하를 건너 다음 건안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³⁷⁾

당이 고구려를 기만하고 고구려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급작스럽게 도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의 주력이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병이었기 때문이다.³⁸⁾ 당 고조 李淵(이연)이 태원유수(太原留守)를 지내면서 이세민은 유목민족과의 전투를 경험해 보았으며, 당 건국 후 돌궐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당이 유목민족의 경기병 전술을 받아들인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이 회원진을 통해서 요하를 도하할 것으로 예상했던 고구려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당의 도하를 저지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B-③의 기록에서 ‘장검이 공격하여 수천 급을 참하였다’는 고구려 병사는 건안성을 지키던 병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645년의 전투에서 건안성이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비사성을 함락시키고 올라온 장량의 부대와 합세하여 건안성을 공격하지만 끝내 건안성이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장검이 공격하였다는 고구려 병사는 요하에서 당의 도하를 저지하려던 고구려 수비병

37) 盤山~牛莊의 南路에 대한 연구는 金毓黻, 『東北通史』, 洪氏出版社, 1976, 326~327쪽; 王綿厚, 『唐營州至安東陸路交通地理考實』, 『遼海文物學刊』1, 1986, 77쪽; 王綿厚·李健才,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1990, 140~152쪽을 참조.

여호규는 장검이 요하를 도하한 직후 건안성을 바로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반산~우장의 남로를 통해 도하하였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여호규, 앞의 논문, 2000, 179쪽)

38) 수말~당초 이세민의 군사 활동에 대하여 분석한 여호규에 따르면 이세민이 거느린 騎兵은 ‘精騎’·‘輕騎’로 표현되고 있으며, ‘鎧馬’·‘具裝鎧’ 등 중장기병을 의미하는 용어로 묘사되지 않았다. 실제로도 이세민은 輕騎兵으로 적진에 돌격하여 적진을 교란시킨 다음 승리하는 전술에 능하였으며 644년 7월에 장검에게 輕騎수천을 보내 고구려의 상황을 살피게 했다는 기록을 볼 때 唐의 기병은 중장기병에서 경기병으로 변모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기동력 역시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여호규, 앞의 글, 2000, 181쪽)

39) 喬鳳岐, 『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中國社會出版社, 2010, 135쪽.

으로 파악된다.

645년의 침입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당의 전략은 소규모 병력으로 소모전을 벌여 고구려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침입에서도 당군의 움직임은 645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④ 又以太子詹事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右武衛將軍孫貳朗等副之。將兵三千人，因營州都督府兵，自新城道入，**兩軍皆選習水善戰者**，配之。李世勣軍既度遼，歷南蘇等數城，皆背城拒戰，世勣擊破之。焚其羅郭而還。⁴¹⁾

B-④의 기록에서 이세적은 遼東道行軍總管(요동도행군총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신성도로 나아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회원진에서 요하를 도하한 이후 요동성을 공격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세적이 요동성이 아닌 남소성과 목저성을 공격한 것으로 보아 회원진이 아닌 통정진에서 요하를 도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645년에 고구려를 기만하였던 것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이상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동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세적의 부대에 ‘물에 익숙하여 싸움을 잘하는 자’를 뽑아서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오는 당군이 통과해야 하는 큰 물은 바로 요하이다. 따라서 이러한 병력배치는 요하 연안에서의 전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B-⑤ 乾封元年，又爲遼東行軍大總管兼按撫大使。高麗有衆十五萬，屯於遼水。又引靺鞨數萬據南蘇城。何力奮擊，皆大破之，斬首萬餘級，乘勝而進，凡拔

40) 『三國史記』卷 21, 「高句麗本紀」10, 寶藏王 6年 條.

六年，太宗將復行師，朝議以爲，高句麗依山爲城，不可猝拔，前大駕親征，國人不得耕種，所克之城，實收其穀，繼以旱災，民大半乏食。今若數遣偏師，更迭擾其疆域，使彼疲於奔命，釋入堡數年之間，千里蕭條，則人心自離，鴨渚之北，可不戰而取矣。帝從之。

41) 『三國史記』卷 21, 「高句麗本紀」10, 寶藏王 6年 條.

七城。乃回軍會英國公李勣於鴨綠水，共攻辱夷·大行二城，破之。”⁴²⁾

이상의 기록은 666년의 기록으로 ‘고구려가 요수에 15만의 대군을 주둔시켰다.’는 기록이 눈에 띈다. 기존 연구에서는 ‘屯於遼水’를 요동지역의 고구려 제성들로 보아왔다. 장성은 일반적인 성과는 다르게 다수의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612년에 벌어진 수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요하연안에서 수의 대군을 맞아 한 달 이상 도하를 지연시켰던 점⁴³⁾, ‘屯於遼水’를 요동지역의 제성들로 보기에는 요하와 요동지역의 제성들 사이의 거리가 짧게는 수km에서 길게는 수십km가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말갈의 병사는 남소성에 주둔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구려의 병사는 ‘屯於遼水’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다. 따라서 이는 요하 연안에 축조된 고구려 천리장성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⁴⁴⁾

이상에서 살펴본 요하 연안에서의 당군의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의 천리장성 축조에 대항하여 당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기만하고 예상 도하처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도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육로를 통해서 침입한 645년과 647년의 당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모두 고구려의 예상과는 다른 곳에서 도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645년의 침입 이후 요동지역을 통과하는 대규모 침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후 몇 차례의 침입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해로를 통한 침입이었다. 셋째, 육로를 통한 침입에서 수전에 능한 자를

42) 『舊唐書』卷 109, 「列傳」59, 契苾何力傳.

43) 김창석,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15, 동북아역사재단, 2007, 123쪽.

44) 물론 고구려 천리장성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屯於遼水’가 고구려 천리장성에 주둔한 것이라는 추측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보완해야 할 문제인 듯하다. 다만, 이 ‘屯於遼水’가 요하연안에 축조된 고구려 천리장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고구려 천리장성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뽑아서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육로를 통한 고구려 침입에서 당이 만나게 되는 큰물은 바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하이다. 따라서 수전에 능한 자를 뽑았다는 기록은 요하 연안에서의 전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요하 유역에서 확인 가능한 당군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으로 고구려 천리장성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요하 연안에 고구려의 방어시설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에서 확인된 요하 연안의 고구려 방어시설과 관련하여 고구려 천리장성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변강유적과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3. 遼河 유역의 邊崗 유적

가. 邊崗 조사 현황

변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70~80년대의 일이다. 변강에 대한 조사 결과는 『懷德縣文物志(회덕현문물지)』에 처음 수록되었다.⁴⁵⁾

45) 懷德縣文物志編寫組, 『懷德縣文物志』1985-12,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 106~107쪽. 변강은 『봉천통지』 및 구 『회덕현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속칭 “노변강”이라고 부른다. 변강의 시발점과 종점, 주행방향과 수축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981년과 1983년의 조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변강은 회덕현 경내를 가로질러 秦家屯(진가둔)·雙榆樹(쌍유수)·四道崗(사도강)·老城堡(노성보)·邊崗屯(邊崗屯)·邊崗四隊(변강사대) 등의 마을을 지나 행복촌 뒤쪽에서 동북방향으로 바로 농안현 경내로 들어가는데, 길이는 모두 50여 리이다. (중략) 회덕현 외부의 변강 주행문제에 관한 조사에 의거하여 보면 변강의 서남은 동요하를 넘어 이수현의 토룡촌으로, 다시 남으로 이수현의 소성자, 창도의 팔면성을 지나 바로 요녕성의 영구로 들어간다. (회덕현의) 북으로 계속 이어져 농안현 경내로 연신 펼쳐진다. (중략) 변강은 농안현 경내로 들어온 후 덕혜를 우회하여 송화강까지 연신 펼쳐지며 흑룡강성 경내로 들어간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강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張福有 등에 의하여 조사가 재개되었다.⁴⁶⁾

1971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조사에 참여한 王健群은 懷德縣(회덕현)의 四區(사구) 戩子街(등자가)에서 시작하여 18개의 마을을 지나고 있는 변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⁴⁷⁾ 李健才 역시 약 1년 반(1988.4~1989.10)에 걸친 조사에 참여한 이후 변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⁴⁸⁾

46) 이 조사는 2008년 5월 3일 길림성 조사를 시작으로 5월 20일 영구시에 이르러 종결되었으며, 다시 2009년 4월 3일에서 5일까지 요양·영구·개주 등의 지역을 조사하였다.

47) 王健群, 앞의 글, 1987, 850~851쪽.

이 邊崗은 東北~西南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길이는 약 50여리가 남아 있었는데 높낮이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끊어지지 않고 모두 이어져 있었으며 모두 판축으로 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三皇廟(속칭 小邊)와 東黃花甸子 일대의 邊崗이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당시 남아있던 유적은 기단의 넓이가 6m, 높이는 약 1m 정도가 남아 있었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과거에는 높이가 3m 이상이었다고 한다. 발굴 결과 소량의 灰褐色 陶片이 발견되었지만 수량이 적고 표면이 磨滅되어 정확한 연대측정은 할 수 없었다고 한다.(이 밖에 발견된 다른 유물은 없다.) 각 마을의 노인들은 60년대만 하더라도 邊崗의 높이가 훨씬 높았으며, 民國年間에는 큰 수레를 이용하여 農安~營口까지 소금을 운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노인들은 東遼河 南岸의 土龍村·梨樹縣의 小城子·昌圖縣의 八面城을 지나면서 곧장 營口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는데 王健群은 1974년 이 루트를 답사하여 邊崗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였다고 한다.

다만, 王健群은 對唐 전쟁에서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邊崗에서 城門·閣樓·墩臺 등의 군사시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오랜 시간동안 방어할 수 있는 방어선이 아니라고 파악하며 이 邊崗은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기록과 유적이 일치하고 있는 산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48) 李健才, 앞의 글, 1991.

1988년 4월~1989년 10월까지의 조사에서는 農安縣 龍王鄉 북쪽 10여리 거리의 邊崗屯과 德惠縣 和平鄉 서쪽 20리의 西邊崗屯, 腰邊崗屯, 東邊崗屯 및 德惠縣 邊崗鄉의 東·西邊崗屯에서 西南의 방향으로 연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邊崗線은 郭家鄉 東屯 5km의 曹家屯 一帶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德惠縣 松花江鄉 老邊崗屯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밖에도 農安縣 前崗鄉의 북쪽 4km에 위치한 于家村老邊崗屯에서도 邊崗 유적을 발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李健才는 邊崗이라는 명칭이 있는 지역에서는 邊崗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

국내학계에서는 여호규가 王健群·李健才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회덕의 노변강유적은 북류 송화강 남안에서 시작되어 飲馬河(음마하)~伊通河(이통하) 연안과 송화강~요하 분수령의 대평원을 가로질러 요하 동안을 경유하여, 요하 하구인 영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농안~영구에 이르는 천리장성의 경로와 거의 겹치기 때문에 고구려가 기존 산성방어체계와 성격이 다른 거대한 토축 성벽의 방어선을 구축하였다고 추정하였다.⁴⁹⁾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張福有 등에 의하여 변강유적이 발견되고 있는 최북단 지역인 덕혜현 松花江鄉(송화강향) 老邊崗屯(노변강둔)에서부터 농안현·공주령시와 이수현·창도현·개원시·철령시·심양시의 서쪽을 지나 요하 하구의 영구시까지 이르는 변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당시 대부분 훼손되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각 마을의 노인들에게서 邊崗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한결 같이 이 邊崗은 懷德縣과 연결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德惠縣과 平鄉 서쪽 10km 거리의 西邊崗屯을 조사한 결과 마을 남쪽 밭에서 작은 토산(小土包) 형태의 邊崗 유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 노인이 말하기를 매 2~3km 거리마다 이와 같은 작은 토산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西邊崗屯의 東北 2~3km 거리에 위치한 腰邊崗屯과 腰邊崗屯 東北 2~3km 거리에 위치한 東邊崗屯에서도 역시 작은 토산 형태의 유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일직선상에 놓여있으며 모두 烽火臺라고 칭한다고 한다.) 邊崗이라는 지명이 발견되는 마을의 60~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모두 이 유적을 '邊崗道'라고 부르는데, 西南으로 懷德縣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邊崗道라고 불렀다고 한다.

德惠縣 邊崗鄉의 東·西邊崗屯 조사당시 마을 노인에게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邊崗을 뒤집었는데 이 邊崗의 양 측면은 부드러운 흙이었지만 邊崗上的 흙은 딱딱하게 다져진 흙이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德惠縣 松花江鄉 老邊崗屯의 조사에서는 邊崗 유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마을 농민이 말하기를 마을 안에서 땅을 팔 때 솥(鍋)이 나왔는데 주민들은 高麗鍋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鐵鏟, 大青磚, 石白 등의 유물이 나왔는데 遼·金 시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松花江鄉 老邊崗屯은 邊崗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最東北端이며 東北으로 7~8km를 가면 제2松花江이 있는데 강의 북쪽에서는 邊崗이라는 지명을 찾아볼 수 없다.

李健才는 邊崗 즉, 唐代의 고구려 천리장성의 동북단은 제2松花江의 南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9) 여호규, 앞의 글, 2000, 172~175쪽.

그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① 德惠市(덕혜시) 변강 유적

덕혜시에서 발견된 변강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덕혜시 경내의 변강 유적의 길이는 약 63km이며, 동북~서남의 주행 방향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도로를 만들고 경작지로 개간되는 등의 이유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며 음마하 양안은 잦은 홍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강 근처의 유적은 현재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산지나 구릉에 위치한 변강 유적만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둘째, 변강 유적은 흙을 다져 판축으로 완성하였다. 바깥쪽에 깊게 흙을 파고 안쪽의 흙을 다져서 만든다. 일반적으로 ‘ㅁ’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 등뼈 모양 같다. 셋째,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곳에서는 높이 약 1m, 기단부의 넓이가 약 5~8m의 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지점에 살고 있는 마을 노인들은 변강이 위치했던 장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적의 경로와 변강에 얽힌 고사를 기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老邊崗·邊崗·小邊 등의 지명이 발견되는 마을은 모두 노변강 유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으로, 변강 유적의 흔적이 반드시 발견되고 있다.

② 農安縣(농안현) 변강 유적

농안현에서 발견된 변강은 4개의 향과 진, 30여개의 둔을 지나며 그 길이는 약 75km에 걸쳐 있다. 농안현에서 발견되는 변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내의 변강은 동북~서남의 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의 유적은 남아있지 않다. 특히, 이통하와 신개하의 교접지대는 비교적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유적은 이미 평평해진 상태이다. 둘째,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곳에서는 마치 물고기 등뼈 같은 ‘ㅁ’자 형태의 변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적은 三崗鄉 廂房子山頭村(삼강향 상방자산두촌)부터 구릉지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적의 상태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속 이어져 공주령 경내로 들어간다. 셋째, 농안현 노변강의 축조 방식 역시 앞쪽으로 깊게 흙을 파서 판축을 한 형태로 덕혜시 경내의 유적의 축조 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강과 邊道(변도)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촌락의 노인들은 현재는 파손되어 찾아볼 수 없는 변강의

50) 조사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을 참조.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각 마을의 명칭 역시 변강의 존재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다.

③ 公主嶺市(공주령시) 변강 유적

공주령시 경내의 변강은 현재 약 52km 정도가 남아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발견되는 유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서북⁵¹⁾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확인되는 유적은 서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에서는 높이 약 4m 정도의 유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길림성~요녕성으로 이어지는 변강 유적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되어 있는 편이다. 이 지역의 유적 역시 ‘凸’자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 등뼈와 같아 보인다. 셋째, 공주령시 경내의 邊崗·小邊 등의 지명이 나타나는 촌락에서는 역시 변강 유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촌민들 역시 이 변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 지역의 유적에서는 황색의 아점토와 흑색의 흙이 뒤섞인 판축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황색의 아점토가 바깥쪽에 둘러져 있으며 흑색의 흙이 그 안쪽에 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된다.

④ 梨樹縣·四平市(이수현·사평시) 변강 유적

이수현과 사평시 경내에서는 약 68km 정도의 변강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평시 경내의 변강은 약 13km 정도가 남아있다. 그 중에서 이수현 경내의 변강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 마치 물고기 등뼈와 같이 ‘凸’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 유적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사평시 경내로 진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유적이 파손되어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邊崗·小邊 등의 지명이 나타나는 촌락에서의 노인들은 변강의 위치와 방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⑤ 昌圖縣(창도현) 변강 유적

창도현 경내의 변강은 대략 35km 정도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의 유적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幸福村 西邊屯(행복촌 서변둔) 서북쪽 지역에서는 아직 물고기 등뼈와 같은 ‘凸’자 형태의 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창도현 경내에서 역시 夾槽(협초)·老邊(노변)·小邊(소변)·邊壕(변호)·老邊壕(노변호) 등의 지명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泉頭鎮 紅山村(천두진홍산촌) 부근에서부터는 상술하였듯이 명 장성 유적과 혼용되어

51) 동북~서남의 오기로 보인다.

있기 때문에 변강 유적과 구분하기 어렵다.

⑥ 營口市(영구시) 변강 유적

해성시 우장진~영구시 경내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강이 약 39km 정도가 남아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도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변강 유적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변강과 관련이 있는 촌락의 명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구시 老邊區 柳樹鎮 前崗子村(노변구 유수진 전강자촌)의 淤泥河(어니하) 북안에서 시작되어 북으로 가면서 后崗子(후강자)·小邊(소변)·小平山(소평산)·老斧廟(노부묘)·越平房(월평방)·老邊(노변)·孫家崗子(손가강자)·周家崗子(주가강자)·下土台(하토태)·前高坎(전고감)·后鋪子(후포자)·滾子泡(곤자포)·腰屯(요둔)·長屯子(장둔자)·旗口(기구)·前老牆頭(전노장두)·后老牆頭(후노장두)·腰會(요회)·小邊西(소변서)·二道邊(이도변) 등의 村屯이 발견된다. 이후 영구시계를 벗어나 안산시에 소속된 해성시 남쪽 경계의 西四方台(서사방태)·牛庄(우장) 등의 지역을 지나는데 이 지역의 유적은 후대의 명 장성 경로와 상접하고 있다.

張福有 등의 조사를 종합한 결과 변강 유적은 제2송화강~영구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변강 유적은 경작지로 개간되었거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지만, 과거에는 변강의 위로 수레가 왕래하면서 북쪽지역과 남쪽지역의 물자를 통하게 하는 교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유적이 지나가는 마을의 노인들은 그 주행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⁵²⁾

다음의 <표 3>은 張福有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변강 유적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52) 王健群, 앞의 책, 1987, 850쪽.

창도현 진가둔촌의 한 노인은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이 변강도를 통해서 영구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변강의 높이가 지붕보다 높았다고 한다.

〈표 3〉 吉林省~遼寧省 소재 邊崗 구간의 정보⁵³⁾

위 치	길이 (km)	토 질	형 태
德惠市	63	黑灰色+灰褐色+黃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農安縣	75	未詳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公主嶺市	52	黃色亞粘土+黑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梨樹縣	68	灰褐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四平市	13	灰褐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소계	258		
昌圖縣	55	灰褐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明 長城 구간	255	未詳	未詳
牛莊鎮~營口 前崗子	39	灰褐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소계	329		
총계	587		

고대 중국에서의 1리는 약 500m이었다.⁵⁴⁾ 따라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을 작성한 시기의 1천여 리는 500km가 조금 넘는 것이 된다. 현재 남아 있는 변강을 바탕으로 추정한 길이는 약 580여km로 ‘東北自扶餘城西南至海千有餘里’라는 당시의 기록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확인이 가능한 약 580여km에 달하는 변강의 모든 구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바로 유적의 형태와 판축기법이다. 일부 구간

53)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247~270쪽을 참고하여 제작.

이 책에는 심양·개원·요양 서쪽지역에 대한 실측조사 현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와 그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명대의 장성 유적과 혼용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王健群과 풍영겸은 자신의 글에서 1989년~1990년의 조사 당시 심양·개원·요양의 서쪽에서도 변강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장하고 있다.(王健群, 앞의 책, 1987; 馮永謙, 앞의 글, 1989)

54) 丘光明 외, 『中國古代度量衡論文集』, 中州古籍出版社, 1990, 236쪽.

고대의 ‘1리’는 시대에 따라 길이가 변화하여 왔다. 기록에 따르면 진·한 시기의 1리는 415m, 수·당 시기에는 540m, 명·청 시기에는 576m이다. 따라서, 고구려 천리장성의 기록과 현재 남아있는 변강 유적 길이의 추정치는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에서는 회갈색 흙과 황색 흙을 서로 엇갈려 판축한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 흑회색의 흙을 판축으로 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층의 두께는 15~20cm로 동일하다고 한다. 변강은 판축으로 다져져 주변의 흙보다 단단했기 때문에 마을의 건물을 짓거나 공사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파손 정도가 심하며, 대부분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다.⁵⁵⁾

또한, 현재 확인이 가능한 유적은 대부분 ‘凸’자 모양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토축으로 축조된 장성의 특징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⁵⁶⁾ ‘凸’자 모양이 군데군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 등뼈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게 된 것이다.

변강이 고구려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왕조의 장성들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중국 동북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연·진·한 장성과 북제·북주·수의 장성은 변강과 경로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⁵⁷⁾, 요·금·명·청의 장성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⁵⁸⁾

55) 李健才, 앞의 글, 1991, 294쪽.

56) 사카쿠라 아츠히데 지음, 유재춘·남의현 옮김, 앞의 책, 2008, 243쪽.

변장을 선으로서 지탱해 주는 것은 전면에 파여진 호(壕)였다. 호를 파서 장벽을 대신하는 수법은 옛날부터 행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변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하였다. 전면을 파는 것은 변장의 높이를 증가시켜 보강효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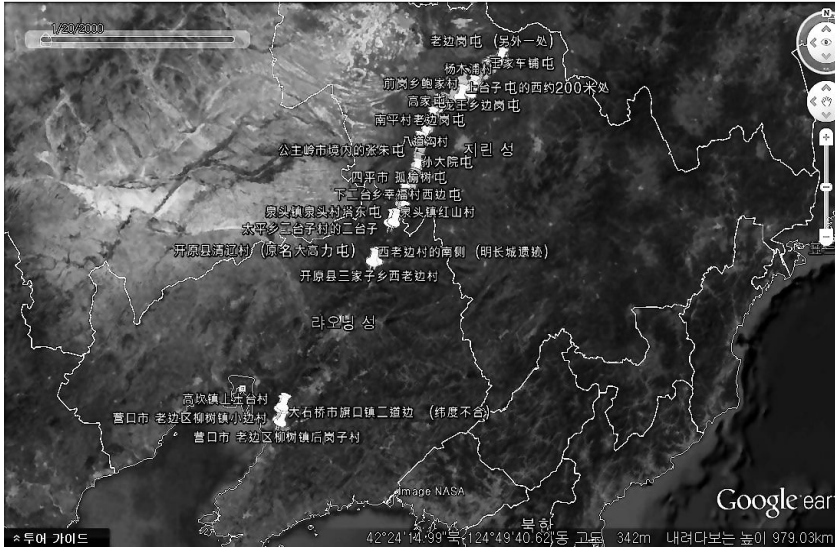
57) 馮永謙, 『東北古代長城考辯』, 『東北亞歷史与文化』 1991-12, 遼沈書社, 1991, 21~35쪽.

중국 동북지역 일대에는 많은 국가들이 축조한 장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연·진·한 장성은 요서지역의 요녕성·내몽고자치주 경계선 위쪽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놓여 있는데, 요하 중류 西岸의 法庫(법고) 지역까지 장성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요하 동쪽에서는 혼하 연안을 따라 돈대 등이 점점이 발견된다. 북제·북주·수 등의 장성은 요서지역에서만 확인된다.

58) 馮永謙, 위의 글, 1991, 37~47쪽.

요대의 장성으로는 태조2년(961)에 쌓았다는 東海口(동해구) 장성과 성종대(태평 6년:1026)에 여진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 混洞江(혼통강) 곧 송화강 유역에 쌓았다는 장성이 있다. 동해구 장성은 요동반도 서남단 또는 요동만 일대로 추정되며, 여진의 남침을 막기 위해 혼통강에 쌓았다는 장성은 제2송화강 북쪽에 축조한 성보, 장새, 봉화로 추정된다. 금대 장성은 대홍안령산맥 동쪽 산록에 동북~

〈그림 1〉 吉林省~遼寧省의 邊崗 분포 현황⁵⁹⁾



〈그림 1〉은 張福有 등의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조사지점의 GPS 측정 좌표를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⁶⁰⁾ 〈그림 1〉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명대 장성의 일부 구간과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다. 명 장성과 중첩되어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다른 장성들의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른 왕조가 축조한 장성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변강이 고구려의 천리장성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남 방향으로 기다랗게 자리잡고 있다. 명대 장성은 요서지역에서 요동만을 따라 오다가 의무려산을 에돌아 혼하·태자하 합류지점에서 요하를 횡단한 다음 북쪽으로 요하 동안을 따라 가다가 창도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꺾어 위원보까지 올라간 다음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꺾어 무순 일대로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청대 柳條邊(유조변)은 요서지역에서는 요녕성·내몽고자치주의 경계선 일대를 따로 오다가 법고에서 요하를 가로질러 개원~위원보까지 온 다음 위원보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대흑산맥 서북쪽 산기슭을 따라 동북방향으로 나아가 송화강 서안까지 구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길림합달령산맥의 지맥을 가로질러 혼하 상류를 거쳐 천산산맥 동남쪽을 따라 압록강 하구 서쪽에 이르게 된다.

59)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299~302쪽을 참고하여 제작.

60)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299~302쪽.

농안~영구까지 노변강·변강·소변 등의 지명이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변강이 과거에는 농안~영구로 이어졌으며 소금 운송을 위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⁶¹⁾ 둘째, 길림성~요녕성으로 이어지는 변강 유적에서 동일한 판축기법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토벽에 사용된 토질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길림성~요녕성의 변강은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⁶²⁾ 셋째, 토벽의 방향이 요하를 건너오는 적을 방어하기 용이한 지점에 축조되어 있으며, ‘凸’자의 모양으로 남아 있는 것은 토축으로 축조된 장성의 특징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왕조의 장성들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변강은 고구려가 축조한 천리장성일 가능성이 높다.

나. 『奉天通志』의 邊崗 관련기록 분석

『봉천통지』⁶³⁾에는 변강⁶⁴⁾ 관련기록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

61) 姜念思, 앞의 글, 2008, 49~50쪽.

62)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247~270쪽.

63) 『奉天通志』에 대한 설명은 바이두

(http://baike.baidu.com/link?url=7bg2Snpa9W3Ngjj516etFVF83tzu0T1RtXp_-FeTGnRakemK3ETSqzxl8rW_f610H3xGfjVWimeREi9fWMI3La) 참고.

『봉천통지』는 전체 260권 100책에 달하며 총 수백만 자의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요녕지역의 역사연혁·산천지모·천문기상·풍토인정·물산자원과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의 상황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자연과 사회 각 방면의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고대로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대사지와 인물지는 진·한에서부터 청말에 이르는 내정·외교·민사·군사 등의 각종 사건을 기록하였으며, 요녕의 2천년 역사상의 혼란·항쟁·문화·무제·사회명류 등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기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금석지에는 역대 금석비각과 다수의 문사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기타 물산·조부·손세·직관·예문 등의 지는 균일하게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요녕 인민들의 각각의 역사 시기마다의 사회생활과 요녕 자연사와 사회사의 일부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편찬자 대부분이 만주 지역사 전문가들로서, 해당 지역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집록하였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변강과 관련된 기록들은 『奉天通志』 卷 74~76 山川志에 수록되어 있다.

64) 『봉천통지』에는 邊崗이 아닌 邊岡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연구

천리장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봉천통지』는 주목받지 못해 왔다.

다음의 <표 4>는 『봉천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강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⁶⁵⁾

<표 4> 邊岡 유적 현황⁶⁶⁾

邊岡 유적 현황							
懷德縣	2개소	開原縣	8개소	法庫縣	2개소	盤山縣	4개소
梨樹縣	2개소	鐵嶺縣	5개소	新民縣	3개소	海城縣	5개소
雙山縣	1개소	撫順縣	6개소	遼中縣	4개소	營口縣	2개소
昌圖縣	5개소	遼陽縣	7개소	台安縣	2개소		

『봉천통지』에 수록된 변강 관련기록은 약 60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 길림성~요녕성의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고고조사 결과 역시 현재 남아있는 변강은 회덕현·이수현·쌍산현·개원현 등지를 경유하고 있다. 또한, 길림성~요녕성까지 노변강·변강 등의 지명이 들어간 마을에서는 과거 변강이 존재했거나, 아직까지도 변강 유적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봉천통지』의 기록과 張福有 등의 조사 결과는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봉천통지』에는 변강 유적이 명 장성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많다. 이는 고구려가 멸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변강과 명 장성의 일부 구간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천통지』의 기록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변강의 주변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⁷⁾

에는 邊崗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혼란을 방지하고자 원문 인용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邊崗으로 통일하였다.

65) 일부 누락된 기록이 있을 수 있다.

66) 『奉天通志』 卷 74~76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지역의 명칭은 『봉천통지』에 기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67) 『奉天通志』는 中國邊疆史志集成 『東北史志』 第二部 4를 참고.

C-① 水自洶洶出屈折西南逕少樹台村南. 村有**古城基址**. 建置年代無考. [(중략) 隱崗間有**古城基址**. 猶可辨認大約口唐宋間物. 村人言係古**高麗城** (중략) 今人見一故城曰**高麗城**. 遇一古曰口高麗口. 其至於不具城郭形象之斷垣. 殘壘亦必名之爲高麗口口高麗營. 高麗口口居於此矣.]⁶⁸⁾

C-② 又西南逕**高麗城子**村西, 村爲**明邊堡長定堡故地**. [(중략) 今村北有口口二土岡. 高皆二丈許. (중략) 村名以**高麗城**名者.]⁶⁹⁾

C-③ 清初設驛占, 西北接高平驛, 東南接牛莊驛後廢. 村西二里許有**古城**周二里. [建置無考. 俗呼爲**高麗城**.] 附近爲**明邊堡西平堡界**. (중략) 蓋昔之**邊台**所在今皆取爲村名也.⁷⁰⁾

C-①~C-③의 기록은 각각 『봉천통지』 쌍산현·요양현·반산현에 수록된 기록으로 ‘高麗城(고려성)’, ‘土岡(토강)’, ‘邊台(변태)’ 등의 기록이 확인된다. 요동지역은 고구려가 오랜 시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려와 관련된 전승이 변강 근처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강이 고구려의 유적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쌍산현·요양현·반산현은 요하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변강 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요하를 도하하는 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하다는 변강의 근처에서 고구려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바로 변강이 확인되는 지역에서 다수의 ‘古城遺址(고성유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는 변강 유적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고성유지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68)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雙山縣, 東遼河, 1728쪽.

69) 『奉天通志』 卷 75, 山川九, 各縣山水, 遼河流域三, 遼陽縣, 柳壕子河, 1803쪽.

70) 『奉天通志』 卷 76, 山川十, 各縣山水, 遼河流域四, 盤山縣, 小高麗房水, 1823쪽.

〈표 5〉 邊岡 주변 古城遺址 현황⁷¹⁾

邊岡 주변 古城遺址 현황							
懷德縣	2개소	開原縣	5개소	法庫縣	1개소	盤山縣	2개소
梨樹縣	1개소	鐵嶺縣	5개소	新民縣	0개소	海城縣	5개소
雙山縣	1개소	撫順縣	6개소	遼中縣	2개소	營口縣	2개소
昌圖縣	3개소	遼陽縣	5개소	台安縣	2개소		

〈표 4〉와 〈표 5〉를 함께 살펴보면 변강 유적 주변에서 다수의 고성유지가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천통지』에 수록된 고성유지에 대한 기록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④ 又西流屈而西南逕小城子村南. 村有古城遺址[懷德縣志城址在公主嶺西北土阜之南. 城寬長不及一里]建置年代無考.⁷²⁾

C-⑤ 邊岡迤南又西折逕戩子街南來注. 邊岡一帶爲古塞遺址, 南逾東遼河與梨樹境老邊岡街接. 北接縣治西南小邊. 又北至縣治西北大青山迤北入長春界. (중략)又西北流逕修家窩柵村南入老河, 主派流長五十三里, 過古塞遺址一.[邊岡一帶]⁷³⁾

C-⑥ 城東北五十里. 高約三丈周約六方里. 純係土岡由東北向西南起伏十餘里.⁷⁴⁾

C-⑦ 源出縣治東南十里老壕村中之涌泉. 村有古塞遺址. 東北接懷德境俗謂老邊岡者[판독불가]是也.⁷⁵⁾

C-⑧ 源出縣治北十五里. 八里台西南流沿明邊牆遺址外, 出平安堡村中. 又西南逕龍王廟南. 又西南出義和屯村中. 又屈曲西南逕正安堡村南. 右受土城子水. 土城子村[距河西岸八里]有故城遺址[周圍二里南一門]建置年代無考. (중략)又西

71) 『奉天通志』 卷 74~76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72)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懷德縣, 公主陵河, 1716쪽.

73)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懷德縣, 老河, 1718쪽.

74)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梨樹縣, 老邊岡, 1721쪽.

75)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梨樹縣, 老壕村水, 1725쪽.

南逕雙堆子村東. 村有**土堆**二座. 兩相對峙. 高二十丈餘. 因爲村名. 建置年代無考.⁷⁶⁾

C-⑨ 一名亮中河. 源出吉林省伊通縣西南境陳背嶺西北流逕孤榆樹村南. 又西北逕東沙河子村南距村東北八里高台子爲明邊台故址. [明口原口北邊口口陽口界. 今遼志口陽口所口有白塔口白塔口口等十三邊口.] 其西北白塔水口[伊通邊境]處明時有白塔空台. (중략)至縣東北二十二里**靠邊屯**北入境. 西流沿明障塞遺址. [明開原口北口口]⁷⁷⁾

C-⑩ 一名小清河. [(중략)]西流逕李家台村北. 又轉西北逕小三家子村東左受摩家溝水. 又北逕王卑城村西. 村東**平岡**上有**故城遺址**. [(중략)]又西北流逕古城子村西. 村北山上有**故城遺址**. 俗名榴城. 建置年代無考.⁷⁸⁾

C-④~C-⑩의 기록을 통하여 요하 유역 특히, 변강이 발견되는 지역 곳곳에서 古城遺址(고성유지)·古塞遺址(고새유지)·邊台(변태) 등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하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러한 군사시설들은 요하 주변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다만, 발견되는 유적의 규모가 대부분 ‘돌레 1리’ 혹은 ‘돌레 2리’ 정도로 작은 것으로 보아 요하 주변 지역을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세력권이 요하까지 미쳤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만약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요동지역의 제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기존 제성들과 요하 사이의 지역을 방어하기 어렵다. 요하와 요동지역의 제성들 사이의 거리는 짧게는 수km~길게는 수십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방어와 관련하여 『봉천통지』에 수록된 변강 관련기록은 고구려 말기의 방어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營口市 高坎鄉 太平堡村(영구시 고감향 태평보촌) 근처에서는 고구려

76)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昌圖縣, 平安堡河, 1732쪽.

77)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昌圖縣, 亮子河, 1733쪽.

78)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開原縣, 清河, 1738쪽.

평지성이 발견되었는데,⁷⁹⁾ 그동안 이 평지성 외에 요하 연안에서 고구려 평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리장성과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필자가 『봉천통지』에 나타나는 고성유지들과 관련하여 영구에서 발견된 이 평지성에 새삼 주목하고 있는 까닭은 이 평지성과 변강 주변의 고성유지들이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서부 전초기지에 관한 연구로 이성제의 연구가 주목된다.⁸⁰⁾ 이성제는 611년(대업7) 李景(이경)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武厲城(무려성)을 잃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무려라와 무려성이 다른 것이었음을 밝히고 고구려와 수의 국경선은 의무려산과 대릉하 하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611년 수가 빼앗은 고구려의 무려성은 수의 보급 거점인 회원진을 견제할 수 있는 요서지역 무려현 故址(고지)에 고구려가 세운 거점성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성’과 ‘라’의 차이를 밝히면서 ‘라’는 요하 서안에 설치되어 도하를 감시하는 초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요서의 거점과 요동을 잇는 간선의 관진으로 기능했다고 보고 있다.

변강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관련 고성유지들과 영구시의 평지성 역시 요하 도하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평시에 요하 이서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교통의 간선을 보호하고, 요하 이서지역에 설치한 武厲邏(무려라) 등의 邏(라)와 요하 동쪽에 설치된 평지성 및 고성유지들로 요하를 감시·통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다가 戰時에는 요하 이서 지역의 거점은 요서지역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이용하다가 적군이 공격을 개시하면 요하

79) 姜念思, 앞의 글, 2008, 50쪽.

이 평지성은 현재까지 요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평지성으로 이 평지성과 요하 사이의 거리는 채 10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성내에서는 고구려의 기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80) 李成制, 앞의 글, 2013, 1~28쪽.

이동으로 물러나 변강으로 상정되는 천리장성을 이용하여 적군의 도하를 지연시키고자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천리장성의 축조가 고구려 전술의 전반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던 당에 비하여 고구려가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도하하는 당의 병력을 천리장성에서 모두 막아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함으로써 평시에는 요하를 감시·통제하다가 전시에 적군의 도하 위치와 관련정보 등을 파악하는 전초기지·봉화대의 역할을 담당⁸¹⁾하며, 당의 도하를 지연시키면서 후방의 성들이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조 방어시설의 목적으로 축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술하였듯이 천리장성의 축조 배경 중 하나는 당의 경관파괴에 대응하여 고구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세력권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 방어체계의 중심은 요동지역의 제성들이었으며, 천리장성의 축조는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방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 방어선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고구려는 중국 여러 왕조들의 침입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만의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당과의 전쟁에

81) 李健才에 따르면 덕혜현 和平鄉(화평향) 서쪽 20리의 西邊崗屯(서변강둔), 腰邊崗屯(요변강둔), 東邊崗屯(동변강둔)의 마을 주민들은 작은 토산형태의 변강 유적을 봉화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李健才, 앞의 글, 1991)

대비하여 축조한 천리장성은 7세기 초까지 유지된 기존의 방어체계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전의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장성’의 축조는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앞서 기존의 방어체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새로운 방어체계를 정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고구려 말에 새롭게 축조된 천리장성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 말기의 방어 전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특징이나 기능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는 기록이 소략하다는 한계 때문에 학계에서는 천리산성설과 변강설로 양분되어 왔다.

변강설에 따르면 변강이 길림성~요녕성까지 동일한 판축 기법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 위치가 요하를 도하하는 것을 방어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 주행방향이 천리장성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구려 천리장성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변강이 고구려 천리장성임을 증명해줄 만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변강과 고구려 천리장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장에서는 천리장성 관련기록을 바탕으로 기존 제설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와 당의 침입경로 상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변강 유적에 대조시킴으로써 고구려가 축조하였다는 천리장성에 접근해 보았다. 수와 당의 침입경로를 비교해 본 결과 수와 당은 요하를 도하하는 것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당은 수와는 다르게 요하 유역에서 특이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구려군을 속이면서 여러 갈래로 요하를 도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육로를 통한 침입에 수전에 능한 자를 뽑았다는 점, 해로를 통한 침입이 증가했다는 점 등의 기록들은 요하 유역에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축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3장에서는 정황상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라고 여겨지는 변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변강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시된 중국 학계에서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봉천통지』에 수록되어 있는 변강 관련기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변강의 주변에서 고려성, 고성유지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영구시에서 발견된 고구려 평지성과 유사한 방어시설들로 판단되며, 고구려가 요하 연안에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이상의 특징들을 종합한 결과 요하 연안에 구축한 고구려의 방어체계는 고구려가 새롭게 축조한 천리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천리장성의 축조가 고구려가 구축하고 있던 기존 방어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고구려는 단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던 당에 비하여 전투인원을 동원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도하하는 당의 병력을 천리장성에서 모두 막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천리장성의 축조는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방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 방어선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요하, 요동, 고구려, 천리장성, 고구려 천리장성, 변강, 영류왕, 보장왕, 연개소문, 봉천통지

<ABSTRACT>

The Great Wall of Goguryeo in Liao-River Area

Woo, Seok-hoon

This study focuses on the Great Wall of Goguryeo that had been estimatedly constructed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ryu to King Bojang for 16 years(631~646). Due to the lack of related historical records, there have been three assumable theories about the Great Wall of Gogureyo, namely Sanseong-yeonbangseol(山城聯防線說) which assumption is the connected wall with the established wall in the past, Sanseong-bangeojogool(山城防禦組群說), and Byeongang(邊崗說). Reviewing the old documentary records and the archaeological data to examine the existing studies,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two former theories are not valid.

Although the remains of the Great Wall of Goguryeo haven't been found,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prove the reliability of Byeongang theory. Firstly, the position of Byeongang was easy to prevent enemies crossing the Liao-River. Secondly, the position of Goguryeo's Great Wall was not overlapped in Liao-Dong, in which the great walls of other dynasties were built. Thirdly, The Direction and length of the Great Wall is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records.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invasion route of Sui and Tang dynasties before and after the Great Wall of Goguryeo was built. The reason why I compared these two dynasties's invasion route is that there found in the historical records the fact that Goguryo built the Great wall after its successive defence from Sui's attack. After the comparison, I found that Tang's invasion pathways to Goguryo became

diversified and Tang's army changed their tactics after building the Great wall.

Next, this study also analyzed Chinese archaeological data and documentary records about Byeongang.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construction technique of Byeongang site stretching a thousand li from the northeast to the southwest, was the same one so called, "Pancheck" which piled up the several earthen panel one by one, from Killim province to Yonyeong province.

Finally, I confirmed the fact that Byeongang site was mentioned in 『Bongcheontongji』 called as 'Goguryeo Castle', 'Goguryeo Tae', 'beacon', small the site of an ancient castle after analysing of the related old records.

Thus, it is certain that the Great Wall played the role of an auxiliary line in the existing defense system of Goguryeo. The purpose of building the Great Wall is presumed to guarantee the time for the rear's preparation and to inform the position as well as the condition of enemy troops to the existing defense system, the fortress.

Key Words : Liao-River, Liao-Dong, Gogureyo, Great Wall, Great Wall of Gogureyo, Byeongang, King Yeongryu, King Bojang, Yeon-gae-so-mun, Bongcheontongji